

스티로폼은 소중한 재활용 자원

스티로폼의 장점, 재활용 대국민 직접 홍보

협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 COEX 태평양관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보전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2007 국제환경기술전'에 '스티로폼은 소중한 재활용 자원'이라는 독립부스를 설치하여 참가하였다.

국내 163개 업체 및 중국, 일본 등 아시아, 미국, 유럽 등 해외 22개국의 92개 업체 등 총 255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4일 간 계속된 이번 전시회에는 수집, 대기, 폐기물 등 여러 환경분야에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있는 약 3만 여명의 관람객이 입장하였으며 당 협회의 전시관에도 이치범 환경부장관 등 개막식 참석 VIP 및 시민, 학생 등 2,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스티로폼의 특성 및 재활용에 관한 정보를 얻어 갔다. 지명석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이사진도 개막 당일 전시회장 근처 식당에서 6월 이

사회를 마치고 현장을 둘러보았다.

협회는 금년 도에도 완벽한 완충력, 탁월한 선도유지 효과, 뛰어난 위생성 등 스티로폼의 특성과 69.3%에 달한 재활용 실적 및 미화 5천 3백 6십 만 달러를 기록한 재생제품 수출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전시관을 방문한 관람객들의 스티로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대다수의 관람객들이 이미 스티로폼이 재활용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아직도 스티로폼의 재활용을 모르고 있던 일부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그 동안 스티로폼의 재활용을 잘 모르고 있던 일부 관람객들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려진 스티로폼이 멋진 사진 액자 등으로 재활용되어 해외에 수출까지 되고 막대한 외화까지 벌어들인다는 사실

에 깜짝 놀라며 앞으로 재활용자원인 스티로폼의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미 방송이나 보도를 통해 스티로폼의 재활용을 알고 있던 관람객들도 날로 세련돼 가는 액자의 디자인 등 재활용제품의 발전에 찬사를 보냈다.

다만 매년 전시회를 관람하는 일부 방문객들은 재활용제품 품질의 향상 등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보다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주문했다.

협회는 일반 국민들의 스티로폼에 대한 막연한 이해를 구체화하고 분리배출·재활용에 있어 시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매년 환경전시회 참가리는 대국민 직접 홍보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 이치범 환경부장관 등 개막식 참석 VIP들이 협회 부스를 방문, 최주섭 부회장으로 부터 스티로폼 재활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07 국제환경기술전



KFRA

